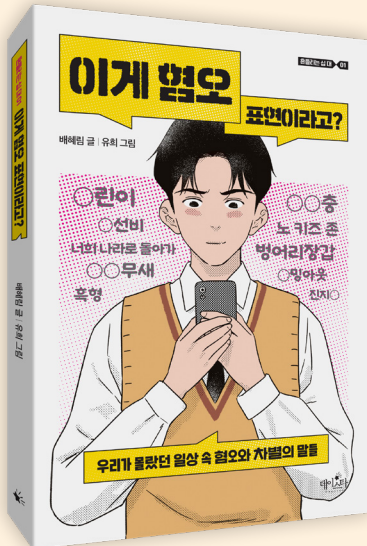


《이게 혐오 표현이라고?》



책 정보

글쓴이: 배혜림

그린이: 유희

출간일: 2026년 8월 10일

분야: 청소년 > 인문/사회/경제

쪽수: 164쪽

가격: 16,800원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따돌림일까?”
 “밈과 짤, 웃기면 그냥 넘겨도 될까?”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 어떤 내용인가요?

혐오 표현으로 흔들리는 십 대의 건강한 언어생활을 되찾아 주는 청소년 인권 교양서

《이게 혐오 표현이라고?》는 청소년의 일상 언어를 가까이 들여다보며 혐오와 차별이 어떤 얼굴로 우리 곁에 숨어 있는지 알려 주는 청소년 인권 교양서다. 이 책은 혐오 표현을 “하면 안 되는 나쁜 말 목록” 처럼 외우게 하지 않는다. 대신 중학생 출입 금지 안내문, 그림 게시물에 달린 조롱 댓글, 지역 비하 밈, 예능 속 농담, 교실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드립’, 부모님 이름을 놀리는 패드립, ‘틀딱’과 ‘진지충’ 같은 낙인까지 청소년이 실제로 마주할 만한 장면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독자는 낯선 개념을 억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 나도 이런 말 들어 봤는데?”, “이 표현, 그냥 웃고 넘겨도 되는 걸까?” 하고 스스로 질문하게 된다. 저자는 24년 차 고등 국어 교사이자 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학교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의 언어생활과 학교생활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 간다. 혐오 표현의 개념, 디지털 공간의 악성 댓글과 알고리즘, 밈과 짤로 포장된 차별, 농담과 비판의 경계, 학교 폭력으로 번지는 언어폭력,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관계,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의 가능성까지 폭넓게 다룬다. 국어·사회·도덕 교육과정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교실 수업과 독서 토론 자료로 활용하기 좋다.

국어

- [2국01-02] 바르고 고운 말로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듣고 말한다.
- [4국01-04] 상황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예의를 지키며 대화한다.
- [9국01-04]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며 대화한다.
- [9국01-10]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 [9국04-07] 세대·분야·매체에 따른 어휘의 양상과 쓰임을 분석하고 다양한 집단과 사회의 언어에 관용적 태도를 지닌다.
- [9국04-08] 자신과 주변의 다양한 국어 실천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언어와 자아 및 세계 사이의 관계를 인식한다.
- [9국06-02] 소통 맥락과 수용자 참여 양상을 고려하여 상호 작용적 매체를 분석한다.
- [9국06-04] 매체 소통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며 매체 자료의 제작 과정을 성찰한다.

사회

- [4사03-02]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와 문제를 분석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6사03-02]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찾아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 [9사(일사)01-03]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차별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처하는 시민의 자질에 대해 토의한다.
- [9사(일사)02-02] 우리 주변에서 활용되는 미디어들을 탐색하고, 미디어를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와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9사(일사)06-01]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종류를 탐색한다.
- [9사(일사)12-03]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국내외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실천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도덕

- [4도02-03] 공감의 태도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도덕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대상과 상황에 따라 감정을 나누는 방법을 탐구하여 실천한다.

- [6도03-01]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인권에 관한 감수성을 길러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함양한다.
- [9도02-05] 다양한 갈등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폭력의 유형과 원인,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상의 폭력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른다.
- [9도03-01]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도덕적 이유를 정당화하고,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인권 감수성을 기른다.
- [9도03-02]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타문화·타종교·타인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에 근거하여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열린 마음을 기른다.

학습 목표

1. 혐오 표현이 단순한 욕설이나 무례한 말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특정 집단을 비하·배제·공격하는 말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2. SNS 댓글, 좋아요, 밈, 짤, 예능 속 농담, 교실 유행어 등 청소년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혐오와 차별이 숨어 있는 장면을 찾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3.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관계를 이해하고, 비판과 비난, 농담과 혐오, 다름과 틀림의 경계를 구분하여 토론한다.
4. 학교와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 표현을 줄이고 존중의 언어를 확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둠별로 설계하고 발표한다.
5.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용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존엄을 지키는 언어 습관을 형성한다.

1단계 읽기 전 활동(도입 및 흥미 유발)

▶ 오늘 내가 들은 말, 내가 쓴 말 돌아보기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에게 최근 하루 동안 자신이 듣거나 사용한 말 중 기억에 남는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친구와 나눈 농담, 단체 채팅방에서 본 말, SNS 댓글, 유튜브 쇼츠나 밈에서 본 표현, 교실에서 유행하는 말 등을 자유롭게 적게 합니다. 이때 교사는 특정 학생이 실제로 사용한 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도록 하고, “누가 했는가”보다 “그 말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친구들과 웃으려고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을까?”

“그냥 유행어라고 생각했던 말이 특정 집단을 낮추는 표현일 수도 있을까?”

“내가 직접 댓글을 쓰지 않고 ‘좋아요’만 눌러도 어떤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따돌리는 데 참여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어떤 말이든 해도 되는 걸까?”

이 활동의 목적은 학생들이 혐오 표현을 먼 사회 문제나 뉴스 속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자신이 매일 사용하는 언어와 연결해 생각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잘못한 사람 찾기”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 습관을 함께 점검하기”라는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표지 읽기: 말풍선 속 단어는 왜 표지에 들어갔을까?

책 표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표지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청소년 인물과 함께 말풍선, 댓글, 온라인에서 떠도는 듯한 표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표지 문구인 “우리가 몰랐던 일상 속 혐오와 차별의 말들”을 칠판에 적고, 학생들에게 표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말하게 합니다. 표지에는 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에서 여러 말을 마주하는 상황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디지털 언어생활과 혐오 표현의 관계를 수업의 출발점으로 삼기 좋습니다. 활동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지 속 인물은 왜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까?”

“표지의 말풍선은 대화처럼 보일까, 공격처럼 보일까?”

“표지에 등장하는 표현들 중 평소 들어 본 말이 있는가?”

“우리는 왜 어떤 말을 ‘장난’이라고 여기고, 어떤 말은 ‘상처’라고 느낄까?”

학생들이 답을 할 때 교사는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낭독하거나 따라 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혐오 표현을 수업 자료로 다룰 때는 표현 자체의 자극성을 확대하기보다, 그 표현이 작동하는 방식과 효과를 분석하도록 지도합니다.

▶ 간단한 판단 활동: 무례한 말, 비판, 혐오 표현 구분하기

학생들에게 가상의 문장 카드를 제시합니다. 실제 혐오 표현을 그대로 쓰기보다, 교육적으로 순화한 예시를 사용합니다.

예시 카드

“너 오늘 발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
근거가 더 있으면 좋겠어.”

“그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근거가 부족해 보여.”

“그 지역 사람들은 원래 다 그래.”

“어린애들은 시끄러우니까 들어오면 안 돼.”

“넌 왜 그렇게 항상 대충 하나?”

“장난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학생들은 각 문장을 ‘정당한 비판’, ‘무례한 표현’, ‘혐오 표현 가능성이 있는 말’로 분류합니다. 이후 분류 기준을 토론합니다. 이때 교사는 혐오 표현의 핵심이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특정 집단 전체를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배제하거나 공격하는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는가에 있음을 안내합니다. 본문에서는 혐오를 개인적인 미움을 넘어 특정 집단 전체를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배제하거나 공격하는 태도로 설명합니다.

2단계

읽기 중 활동 (장별 핵심 질문 및 인권·언어생활 탐구)

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질문들입니다. 각 장의 내용을 국어, 사회, 도덕 교과와의 개념과 연결하여 지도해 주세요.

프롤로그~1장 혐오 표현의 개념과 판단 기준

Q. 혐오는 단순히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일까?

지도 포인트 학생들이 혐오를 단순한 감정으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대상이나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혐오 표현은 그 감정이 특정 집단 전체를 낮추고, 배제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드러날 때 문제가 됩니다. 본문에서는 혐오를 “특정 대상을 향한 개인적인 미움을 넘어, 그 집단 전체를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배제하거나 공격하는 태도”로 설명합니다. 또한 어떤 말이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듣는 사람을 위축시키거나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는 느낌을 주면 혐오 표현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나는 싫어할 자유가 있다”와 “그 싫음을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로 표현해도 된다”는 것이 같지 않음을 구분하게 합니다. 비판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논리적 지적이지만, 혐오 표현은 상대를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구성원으로만 묶어 낮추는 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Q. ‘중학생 출입 금지’는 왜 혐오와 연결될 수 있을까?

지도 포인트 본문 1장에는 스터디 카페에서 ‘중학생 출입 금지’ 안내문을 보고 돌아서는 청소년의 사례

가 제시됩니다. 이 장면은 일부 청소년의 행동을 근거로 모든 중학생을 시끄럽고 문제 있는 집단처럼 일반화하는 태도를 보여 줍니다. 학생들은 이 사례를 통해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규칙”과 “집단 전체에 대한 배제”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소란을 막기 위한 규칙은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규칙이 공정할까?” “중학생은 시끄럽다”라는 말은 어떤 낙인을 만들까?” “일부의 잘못을 이유로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될까?” “학교 안에서도 특정 학년, 성별, 지역, 외모, 성격을 이유로 비슷한 낙인이 만들어진 적은 없을까?”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혐오 표현을 단어 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배제와 차별의 구조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Q. ‘극혐’ 같은 표현은 왜 가볍게만 볼 수 없을까?

지도 포인트 본문에서는 혐오 표현에 자주 노출되면 혐오에 익숙해지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남들도 다 하는 말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혐오의 피라미드 개념을 통해 편견, 조롱과 모욕, 차별, 증오 범죄, 집단 학살이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말 하나로 무슨 큰일이 나느냐”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말이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고, 반복된 표현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며, 그 분위기가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단, 학생들에게 공포심을 주기보다 “작은 말의 습관이 공동체의 기준을 만든다”는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2장 디지털 공간, 댓글, 좋아요, 알고리즘

Q. 댓글 한 줄이 정말 폭풍이 될 수 있을까?

지도 포인트 2장에서는 그림 게시물에 달린 조롱 댓글이 점점 늘어나고, 처음에는 칭찬이 많았던 댓글 흐름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사례가 나옵니다. 본문은 댓글이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별생각 없이 쓴 부정적인 댓글 한 줄이 거대한 폭풍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업에서는 댓글의 특성을 분석합니다. 댓글은 짧고 빠르며, 익명성에 기대어 책임감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한 댓글이 다른 댓글의 분위기를 바꾸고, 조롱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조롱이 붙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내가 직접 악성 댓글을 쓰지 않았더라도, 조롱 댓글에 웃는 반응을 남기거나 공유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묻습니다.

활동으로는 같은 게시물에 대해 세 가지 댓글 흐름을 비교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칭찬과 조언이 균형 있게 달리는 댓글창
2. 조롱과 비난이 이어지는 댓글창
3. 누군가가 “그런 말은 상처가 될 수 있다”고 개입한 뒤 분위기가 바뀌는 댓글창

학생들은 댓글 하나가 온라인 공간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분석하고, 자신이 온라인에서 어떤 참여자가 될지 생각합니다.

Q.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따돌림일까?

지도 포인트 이 질문은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매우 밀접합니다. 교사는 ‘좋아요’가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배제하는 게시물에 동조의 의미로 눌릴 때는 괴롭힘에 참여하는 신호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온라인 괴롭힘은 글과 사진이 빠르게 공유되고 삭제 후에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피해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토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구를 조롱하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책임이 있을까?”
2. “보기만 하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3. “피해자를 돕는 댓글은 어떤 말이어야 할까?”
4. “온라인 공간에서 방관자, 동조자, 조력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학생들이 도덕적 판단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 지침을 세우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조롱 게시물에 반응하지 않기, 신고하기, 당사자에게 따로 괜찮은지 묻기,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기, 댓글로 상황을 더 자극하지 않기 등을 정리하게 합니다.

Q. 알고리즘은 왜 혐오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지도 포인트 본문에서는 SNS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관심과 반응을 바탕으로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추천하고, 이 과정에서 필터 버블과 에코 챔버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에 반응하면 비슷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추천되고, 사용자는 다양한 관점보다 자신이 이미 믿고 싶은 정보만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알고리즘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보 환경을 구성하는 힘으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내가 본 영상이 세상의 전부일까?”, “추천 콘텐츠는 왜 계속 비슷할까?”, “비슷한 생각만 반복해서 보면 타인을 이해하기 어려워질까?” 같은 질문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와 연결합니다.

3~4장 **밈, 짤, 농담과 혐오의 경계**

Q. 밈과 짤은 웃기면 그냥 넘겨도 될까?

지도 포인트 3장은 밈과 짤이 청소년 문화에서 중요한 소통 방식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혐오와 차별이 ‘웃긴 포장지’를 쓰고 들어올 수 있음을 다룹니다. 보도자료에서도 이 책이 밈과 짤로 포장된 차별, 농담과 비판의 경계를 폭넓게 다룬다고 소개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밈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밈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게 합니다. “무엇을 웃음거리로 삼고 있는가?”, “누가 웃고 누가 불편해지는가?”, “특정 집단의 특징을 과장하거나 낮추고 있지는 않은가?”, “그 밈이 반복될수록 어떤 고정관념이 강해지는가?”를 질문합니다. 활동으로는 ‘밈 점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이 표현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집단 전체를 조롱하는가?
2.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낮추는 내용인가?
3.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어도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가?
4. 웃음의 대상이 된 사람이 반박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가?
5. 이 표현이 반복되면 차별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는가?

Q. “그냥 농담인데”라는 말은 언제 문제가 될까?

지도 포인트 4장은 예능 속 농담, 일상 속 차별의 말, 특정 종교나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룹니다. 교사는 농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농담의 구조가 누군가의 정체성이나 소속 집단을 낮추고 배제할 때 문제가 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웃기려고 했다”는 의도만으로 말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도 강조합니다. 학생들에게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집단 전체를 일반화하는가?
2. 당사자가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예민하다”고 몰아붙이는가?
3. 힘이 약한 집단을 향한 조롱인가?
4. 그 말이 반복될수록 차별이나 배제를 당연하게 만드는가?

이 기준을 활용해 학생들은 농담, 비판, 조롱, 혐오 표현을 구분해 봅니다. 교사는 “농담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누구를 희생시켜 웃고 있는지 생각하자”는 방향으로 수업을 이끕니다.

5장 학교 안 언어폭력과 혐오 표현

Q. 교실은 왜 혐오 표현의 놀이터가 될 수 있을까?

지도 포인트 5장에서는 혐오 표현이 교실에서 유행어, 드립, 장난의 이름으로 반복되는 장면을 다룹니다. 본문은 학생들이 유튜브,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배운 자극적인 표현을 교실에서 사용하고, 특정 성별·지역·장애·가난 등을 이유로 누군가를 조롱하는 단어가 밈이나 드립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다들 쓰는 말인데 왜 문제냐”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수가 사용한다는 사실이 그 표현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말이 유행어가 되었더라도, 그 말이 누군가에게 일상적 위협이나 배제의 신호가 된다면 교실은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Q. 장난이 혐오가 되는 신호는 무엇일까?

지도 포인트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장난이 혐오가 되는 신호’를 정리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듣는 사람이 웃지 못하고 위축된다.
2.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공격한다.
3. “싫다”고 말해도 계속 반복된다.
4. 주변 사람들이 웃거나 동조하면서 피해자가 더 고립된다.
5. 말한 사람은 장난이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관계에서 밀려난다.
6.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예민하다”, “분위기 깬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본문 사례를 바탕으로 “장난의 조건”과 “폭력의 조건”을 비교합니다. 수업 후반에는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재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예시

“그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그 표현은 특정 집단을 낮추는 말 같아.”
“웃기려고 한 건 알겠지만, 다른 말로 해 보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이 분위기에서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어.”

이 활동은 학생들이 거창한 개입이 아니라 작은 말로도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6장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Q.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할까?

지도 포인트 6장은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의 관계를 다룹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책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혐오 표현을 정당화하려는 주장, 학교폭력으로 번지는 언어폭력의 위험까지 입체적으로 다룹니다. 교사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임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권력에 대한 비판, 소수 의견의 제시, 사회 문제의 공론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존엄과 안전을 침해하는 말까지 무제한으로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의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침묵과 위축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향하는 가치와 충돌합니다. 토론은 찬반 대립으로만 몰고 가기보다, 다음 질문으로 세분화합니다.

1.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3.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에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4. “비판과 혐오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5. “혐오 표현을 줄이기 위해 법, 학교 규칙, 개인의 실천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7~9장 혐오의 대상, 존중의 공동체, 실천

Q. 나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지도 포인트 7장은 세대, 나이, 정체성, 사회적 위치와 관련된 혐오 표현을 통해 누구도 혐오의 대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학생들에게 현재 자신이 다수에 속해 있다고 느끼더라도, 상황과 시간에 따라 누구나 소수자나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활동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지금 가볍게 쓰는 말이 미래의 나를 향한 말이 될 수도 있을까?”
2. “나이가 들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다른 문화권에 속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지 않을까?”
3. “내가 속한 집단이 조롱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 활동은 도덕 교과와 공감, 도덕적 상상력, 인권 감수성과 연결됩니다.

Q. 말 하나 바꾼다고 생각이 바뀔까?

지도 포인트 8장과 9장은 혐오의 언어를 존중의 언어로 바꾸는 실천을 다룹니다. 보도자료는 이 책이 끝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금지와 검열이 아니라 존중과 용기라고 설명합니다. 혐오 표현을 쓰지 않는 일은 단순히 착한 말을 하자는 캠페인이 아니라, 교실과 온라인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시민적 실

천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말을 바꾸면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관계와 공동체의 분위기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수업의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실천 문장을 정하게 합니다.

예시

“나는 유행어를 쓰기 전에 그 말이 누구를 향하는지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친구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장난이라고 넘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온라인에서 조롱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틀린 사람으로 단정하기 전에 왜 다른지 물어보겠습니다.”

3단계 읽기 후 활동(심화 및 적용)

활동 1 우리 반 언어생활 점검표 만들기

학생들이 책을 읽은 뒤, 우리 반 또는 우리 학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단, 실제 혐오 표현을 공개적으로 나열하거나 특정 학생을 지목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모둠별로 “우리 반 언어생활 점검표”를 만듭니다.

점검 항목 예시

- 특정 집단을 한 단어로 묶어 조롱하는 표현이 있는가?
- 친구가 싫다고 말했는데도 반복되는 장난이 있는가?
- 온라인에서 본 표현을 의미를 모른 채 따라 쓰는 경우가 있는가?
- 누군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민하다”고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는가?
- 칭찬, 조언, 비판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가?
- 우리 반에서 안전하게 “그 말은 불편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모둠은 점검표를 바탕으로 우리 반의 언어생활에서 개선할 점을 2~3가지 선정합니다. 이후 개선 방안을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신호 만들기”, “단체 채팅방 언어 규칙 정하기”, “조롱 대신 조언 문장 연습하기”, “유행어 의미 확인하기”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활동 2 혐오 표현 판단 카드 토론

교사가 가상의 상황 카드를 준비합니다. 학생들은 각 상황을 읽고 혐오 표현인지, 무례한 표현인지, 정당한 비판인지 판단합니다. 판단 후에는 반드시 근거를 말하게 합니다.

상황 예시

- 친구의 발표에 대해 “자료 출처가 부족해서 설득력이 약했어”라고 말한다.
- 특정 지역 출신 친구에게 “너희 지역 사람들은 원래 그렇잖아”라고 말한다.
-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의 사진을 편집해 올리고 여러 명이 웃는 반응을 남긴다.
- 어떤 정책에 반대하며 논리적 근거를 들어 비판한다.
- 특정 종교나 문화권 사람들을 모두 위험한 사람처럼 표현한다.
- 친구가 불편하다고 말했는데 “농담인데 왜 예민하게 굴어?”라고 답한다.

토론 기준

- 개인의 행동을 비판하는가, 집단 전체를 공격하는가?
- 사실과 근거에 기반하는가, 조롱과 낙인에 기대는가?
- 듣는 사람이 반박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관계인가?
-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가?
- 반복될 경우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 활동은 혐오 표현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고려해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활동 3 온라인 댓글 흐름 바꾸기

학생들에게 가상의 SNS 게시물과 댓글창을 제시합니다. 처음 댓글 몇 개는 조롱이나 비난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한 댓글을 작성합니다.

활동 절차

1. 게시물 상황을 읽는다.
2. 댓글창의 분위기를 분석한다.
3. 어떤 댓글이 피해자를 더 고립시키는지 찾는다.
4. 분위기를 바꾸는 개입 댓글을 작성한다.
5. 모둠별로 가장 적절한 개입 방식을 발표한다.
6. 좋은 개입 댓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7. 상대를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
8. 조롱을 멈추자는 메시지가 명확하다.
9. 피해자를 대상화하지 않는다.
10.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다.
11. 문제 행동을 지적하되 인신공격으로 흐르지 않는다.

예시

“이 댓글은 그림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 사람을 조롱하는 말처럼 보여요.”

“비판을 하려면 어떤 점을 고치면 좋을지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친구를 태그해서 비웃는 건 당사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댓글은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활동 4 밈과 짤 비판적으로 읽기

학생들이 실제 온라인 밈이나 짤을 가져오게 할 경우, 반드시 교사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혐오 표현이 노골적으로 포함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교사가 순화·재구성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둠별로 하나의 밈 상황을 분석하게 합니다.

분석 항목

1. 이 밈은 무엇을 웃음의 대상으로 삼는가?
2. 특정 집단을 단순화하거나 낮추는가?
3. 이 밈을 보고 불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 이 표현이 반복되면 어떤 고정관념이 강화되는가?
5. 같은 재미를 주면서도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마지막에는 “존중을 해치지 않는 밈 다시 만들기” 활동으로 연결합니다. 학생들은 기존의 차별적 구조를 빼고도 재미를 살릴 수 있는 대체 표현을 만들어 봅니다. 이 활동은 국어의 매체 소통, 복합양식 자료 제작, 사회의 미디어 비판적 검토와 연결됩니다.

활동 5 표현의 자유 토론: 말할 자유와 안전할 권리

학생들을 찬반으로 단순히 나누기보다, 네 가지 입장을 배정해 토론하게 합니다.

1.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2. 혐오 표현은 공동체 안전을 해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
3. 법적 제한보다 교육과 문화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
4.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

각 모둠은 자신의 입장을 준비하되, 반드시 다른 입장의 우려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토론 후에는 “우리 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원칙”을 함께 만듭니다.

예시 원칙

- 비판은 허용하되, 정체성을 이유로 한 조롱은 허용하지 않는다.
- 의견 차이는 토론하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 불편함을 말한 사람을 예민하다고 몰아가지 않는다.
- 온라인 공간에서도 교실과 같은 존중의 기준을 적용한다.

활동 6 나만의 언어 실천 선언문 쓰기

수업의 마지막 활동으로 학생들이 개인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선언문은 거창한 약속보다 실제 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쓰게 합니다.

작성 예시

“나는 친구의 외모, 가족, 지역, 성별, 나이, 문화적 배경을 농담의 소재로 삼지 않겠습니다.”

“나는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를 조롱하는 흐름이 생기면 웃는 반응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비판할 때 사람 자체가 아니라 행동과 근거를 말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그 말 불편해’라고 말하면 변명하기보다 먼저 멈추겠습니다.”

“나는 다름을 틀림으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선언문은 교실 뒤에 붙이거나, 개인 독서 기록장에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체 공개는 선택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 지도 시 유의사항

- 혐오 표현 수업은 학생 개인을 지적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방어적 분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어떤 말이 어떤 효과를 낳는가”를 함께 분석하는 수업으로 운영해 주세요.
- 실제 혐오 표현을 지나치게 많이 제시하거나 반복해서 말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필요한 경우 초성, ○○, 순화 표현, 가상 사례를 활용해 표현의 자극성을 낮추고, 말의 구조와 맥락을 분석하게 합니다.
- 학생들이 “그럼 아무 말도 못 하라는 거냐”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의 목표가 침묵이 아니라 더 정확하고 책임 있는 표현을 배우는 것임을 설명해 주세요. 비판은 가능하지만, 정체성

을 이유로 한 조롱과 배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혐오 표현의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묻지 말고,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험 고백을 하게 만들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교사는 정치적·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 특정 입장을 주입하기보다, 인권, 존엄, 안전, 책임 있는 표현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어야 합니다.
- 온라인 괴롭힘 사례를 다룰 때는 실제 학교 사건이나 특정 학생을 연상시키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의 사례를 사용하고, 피해자 보호와 신고·도움 요청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 “표현의 자유”를 다룰 때는 자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한 뒤,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충돌할 때 어떤 책임이 필요한지 탐구하도록 합니다.
- 수업의 마무리는 금지 목록을 외우는 방식보다 실천 가능한 언어 습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책이 강조하듯, 혐오 표현을 쓰지 않는 일은 단순한 착한 말 캠페인이 아니라 교실과 온라인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시민적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